



20일 총파업 현대성우메탈로 간다

금속노조 1차 총파업 사수

금속노조가 13일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13일 전국 각지의 금속노조 사업장이 6시간 이상 파업하고 서울 양재동에 모였다. 3만여명의 조합원은 재벌적폐 청산과 산별교섭 쟁취를 외치며 현대차 본사를 뒤덮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20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지부 총파업을 벌인다.

현대성우메탈 천막농성 100일

지부는 20일 총파업을 서울 현대성우메탈 본사 앞에서 개최한다. 올초부터 강제 전환배치, 임금체불, 외주화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성우메탈은 아직도 현안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5월 30일 지부 확대간부 동지들의 본사 투쟁 이후 대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튿날 바로 면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다. 충주노동지청이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 공장장은 면담 파기하고 도망만 다니고, 노동지청의 명령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충주에서는 답이 없어 보인다. 지부는 20일 본사에서 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대성우메탈지회는 4월 8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로 딱 100일째다. 5월 8일부터 시작한 본사 피켓시위는 70일째다. 지회는 천막농성과 본사 피켓시위를 통해 강제 전환배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회사의 외주화 계획을 저지하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이제 지부의 총파업으로 힘을 모아줄 때다.

20일, 지부총파업은 현대성우메탈 본사로!

지부는 20일 총파업을 현대성우메탈 본사에서 진행한다. 100일째 이어온 지회의 투쟁에도 요지부동인 회사를 움직이기 위해 본사로 다시 향하기로 결정했다. 복수노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성우메탈 동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부 전체 조합원의 연대의 마음을 보여주자.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매일 선전전으로 조직확대 중

현대모비스충주지회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사 동료들을 만나며 조직 확대 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회는 설립한 후 매일 아침 6시50분, 저녁 6시50분 2회에 걸쳐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소식지를 발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젊은 조합원들이 많은 사업장 답게 현장의 불합리한 사안을 신고받는 모바일 신고센터(카카오톡 오픈채팅)와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선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진행되는 아침, 저녁 선전전에 많은 지역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부 내 지회 동지들은 벌써 이틀이나 결합했고,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를 비롯해 충북본부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신규지회가 잘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바란다.

* 주요 일정 *

- ☐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7/16(월) 14시 지부 회의실
- ☐ 10차 중앙교섭
7/17(화) 14시 노조 회의실
- ☐ 11차 지부교섭
7/19(목) 15시 장소 협의
- ☐ 7.20 총파업
7/20(금) 15시
서울 현대성우메탈 본사